

## 번역과 텍스트기능\*

김 윤 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 I. 머리말

“현대는 번역의 시대이다”라는 P. Caillé의 말과 같이 금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상호간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또한 이에 상응해서 번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번역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문화의 수입과 수출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의 번역학자들도 고전번역본에서 많은 오역이 발견됨에 따라 고전을 다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오역은 문화권 상호간 관념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전이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기부터 번역학자들은 기존의 언어학적 번역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기능번역 이론을 주장하면서 문화의 중개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기능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특수한 경우로 정의되며 그 목적은 문화간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언어는 문화장벽의 특별한 경우로 기술된다. 따라서 번역자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번역능력은 언어능력이 아니라 문화능력이다.

텍스트언어학의 정립과 더불어 정체상태에 머물렀던 번역학은 새로운 활로

---

\* 본 논문은 2000년도 서울대학교 교수 해외연수 특별지원금에 의해서 작성되었음.

를 찾게 되었다.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현상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언어상황에 상응하는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을 지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구조이다. 텍스트언어학에서 보면 번역은 문자라는 표현수단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과 이데올로기, 사회-문화의 전통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른 문화권의 언어 즉 다른 형식의 텍스트로 재현하는 예술적이고 창조적 작업이다.

텍스트는 언표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또한 번역의 기본단위이다. 번역의 핵심적 문제는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텍스트의 의의를 역어문체론에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유형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의 집필목적은 언어(텍스트)의 본질에 상응하는 번역이론(기능번역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여기에서 기능번역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텍스트특성을 파악하고 번역과 텍스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II. 번역과 텍스트

1970년대 언어학자들은 문장경계를 초월하는 언어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텍스트언어학이 정립되었으며<sup>1)</sup> 고대 그리스시대 수사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텍스트는 최근 다시 언어학의 중심과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구조주의언어학에서 발전된 텍스트언어학은 그 자체에 내용문법, 문체론, 수사학, 의존문법, 기능문법, 구조주의이론과 기호학의 연구방법을 통합함으로써 화용론적 요인을 수용하여 번역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제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Hartmann(1971, 10ff.)에 의하면 텍스트는 본래의 언어기호이며 언어는 텍스

1) 구체적 텍스트개념은 이미 기원 후 400년 경 Hieronymus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역자로 추앙을 받고 있으며, 그의 서거일인 AD 420년 10월 30일은 번역자의 날로 제정되었다.

트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기능한다. 체계언어학에서 사용된 언어단위 그 자체는 물론 존재하지 않고 어떤 의의도 지니지 않는다. 언어는 이미 정해진 의도나 목적과 언어 자체 의의 즉 기능수행 능력을 제공하는 기본단위에 의존한다(ibid. 15ff.). 텍스트는 문장과 같이 단순한 음향적 사실이 아니고 언어행위의 실현이기 때문에 텍스트기능은 언표 내적 행위로 기술될 수 있다 (Schmidt 1973, 50ff.)<sup>2)</sup> 언표 내적 개념을 문장에서 텍스트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전통적 화용론의 비판적 발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관점에서 그것의 극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언어체계가 아니라 행위계층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체계 중심의 언어학에서 화용론적 언어학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후 번역학 역시 언어 외적 요인 즉 텍스트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텍스트에 기초한 기능번역 이론을 대표할 수 있는 학자는 Hönig/Kussmaul(1984), Reiss/Vermeer(1984), Holz-Mänttari(1984), Nord(1988) 등이고 이들의 접근방법의 특성은 역어텍스트 중심의 번역이라는 점이다.

기능번역 이론<sup>3)</sup> 즉 목적이론Skopostheorie은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Reiss/Vermeer 1984)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고 전문학술지인 *TEXTconTEXT*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이 이론은 전통적인 언어학적 번역 이론과는 전혀 다른 단초에서 전개되었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학술용어<sup>4)</sup>가 제정되었다. 기능번역 이론은 물론 언어와 문화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가설에 토대를 두지만 그 의존성의 정도는 Weisgerber<sup>(1971)</sup>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다. 그러나 역어텍스트 기능과 번역의 일방향성Unidirektionalität은 물론이고 수신인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또 한편

2)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언표 내적인 것과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언표 내적인 것은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는데 반해서 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화자 자체가 기 때문이다.

3) Nida/Taber(1969, 11)는 이미 목표언어target language 대신에 수용자 언어receptor language 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기능번역 이론의 단초로 고려된다.

4) 새로운 학술용어로서 Translationsprozess번역과정, Translat번역물, Translatologie 통·번역학, Translator번역자, Translationsskopos번역기능, Translatsskopos번역물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기능번역 이론과 기술적 번역이론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도 있다.

기능적 텍스트이론<sup>5)</sup>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텍스트는 커뮤니케이션적 상황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적 행위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는 언어나 비언어적 정보 이외에도 특정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각인된 텍스트의 경험과 기대, 일반상식, 행위습성, 가치체계, 커뮤니케이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행위는 텍스트생성이 아니고 텍스트수신인의 수용과 더불어 완성된다. 텍스트발신인은 특정의 커뮤니케이션적 의도를 텍스트에 표현하는데 이러한 의도가 그 목적을 성취할지는 전적으로 텍스트수신인의 의도에 달려있다(Nord 1999, 144f.).

이와 같이 새로운 텍스트개념은 좁은 의미에서 텍스트언어학의 역할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화용론적 요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상대화되었으므로 실제 번역작업에서 동일한 원어텍스트가 목적상황의 요구와 관련되는 수신인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번역된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번역의 질과 충족성의 기준이 되었던 원어텍스트의 위상은 절하되고 그 대신 역어문화권의 언어상황<sup>6)</sup>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번역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위에서 논의한 기능번역 이론의 번역방법은 텍스트가 사회-문화의 언어화된 일부분이라고 주장한 Hönig/Kusssmaul(1984, 53-58)의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잘 드러난다:

In Parliament he fought for equality, but he sent his son to Winchester. When his father dies his mother couldn't effort to send him to Eton anymore.

[그는 의회에서 평등을 외쳐냈지만, 자기 아들을 윈체스터에 있는 사립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의 어머니는 그를 학비 부담이 큰 일류 사립학교인 이튼에는 보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번역의 두 극단적 경우를 제시했다:

5) 기능적 텍스트이론에서 텍스트개념은 언어학적 개념과는 반대로 사회학적 개념이다.

6) 역어문화권의 상황요인에는 텍스트생성의 장소와 시기뿐만 아니라 수신인도 포함된다.

...seinen eigenen Sohn schickte er auf die Schule in Winchester.

...konnte es sich seine Mutter nicht mehr leisten, ihn nach Eton zu schicken, jene teure englische Privatschule, aus deren Absolventen auch heute noch ein Großteil des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Führungsnachwuchses hervorgeht.

[그는 자기 아들을 윈체스터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학비 부담이 너무 큰 영국의 사립학교 이튼에는 보낼 수가 없었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영국 정계와 재계의 후속세대 지도자들은 이 학교 출신들이다.]

첫번째 번역텍스트는 원문과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한 ‘Winchester’라는 명칭이 문화권이 다른 독일의 독자들에게 그것이 영국인들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내용을 전해주지 못한다. 두번째 텍스트의 번역은 너무나 차별화되었다. 비록 번역텍스트가 영국의 사립학교public school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정확하지만 너무나 자세하고 잉여적이다. 그리고 Hönig/Kusssmaul은 기능번역의 질적 평가기준으로서 필수적 ‘차별화 정도 Grad der Differenzierung’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음의 두 번역텍스트를 제시했다(ibid. 58ff.):

Im Parlament kämpfte er für die Chancengleichheit, aber seinen eigenen Sohn schickte er auf die eine der englischen Eliteschulen. Als sein Vater starb, konnte seine Mutter es sich nicht mehr leisten, ihn auf eine der teuren Privatschulen zu schicken.

[의회에서 그는 기회균등을 위해서 투쟁했지만 자기 아들을 영국 일류 사립학교에 보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의 어머니는 그를 학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는 보낼 수가 없었다.]

텍스트는 주어진 상황에 귀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그 자체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번역은 역어문화권에 소속된 텍스트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원어텍스트 본래의 기능을 역어텍스트에 그대로 보존하든지(기능불변성Funktionskonstanz) 또는 역어문화권에 적합하도록 원래의 기능을 바꾸어야 한다(기능변경성Funktionsveränderung).<sup>7)</sup>

7) Hönig/Kusssmaul 이론의 주요개념인 ‘기능불변성과 기능변경성’의 개념은 이미 Vermeer가 제시한 바 있다.

텍스트언어학은 언어학의 영역을 문장에서 텍스트로 확장하는 데 공헌했다. 그러나 그 발전의 후기에 언어학의 커뮤니케이션적 성향은 언어적 실현에 제한된 텍스트개념의 변증법적 지양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텍스트개념 자체 또한 지양되었다. 그 이유는 텍스트개념은 언어행위에, 그리고 언어행위는 다시 그보다 한층 더 포괄적 행위체계에 통합되고 또한 그것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이다(Helbig 1986, 156f.).

현재 빠를 중심의 언어학에서 텍스트는 언표의 기본단위이며, 커뮤니케이션적 목적으로 생성된다. 문장은 문법이라는 단순한 체계 안에서 정의되는 단위이지만 텍스트는 복합체계이며 그 체계들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빠를 차원의 구체적 언어단위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 단위이며 또한 텍스트번역의 기본단위이다. 커뮤니케이션은 고립된 단어 또는 문장이 아니고 텍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텍스트에 관한 관심이 필연적으로 높아졌다.

문장은 문법성에 의존하지만 텍스트는 현실적 시공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행위로서 실현되며 그 의의는 발화상황,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발화자의 의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단순한 언표의 구성체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 구성체이다. 텍스트는 텍스트성 즉 스스로는 결속적이고 전체로는 인지가능한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기호의 한정된 연쇄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언어학적 방법으로 기술되고 설명되며 또한 분류될 수 있는 텍스트의 내적 및 외적 표지<sup>8)</sup>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지의 도움으로 텍스트특성을 대비언어학적으로 기술하고 실제 텍스트번역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번역방법의

8) Nord(1995, 40)는 텍스트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과 이러한 기능이 실현되는 커뮤니케이션적 상황요인을 '텍스트 외적(언어 외적) 요인'과 '텍스트 내적(언어 내적) 요인'으로 분류했다. 전자는 언어 외적 요인으로서 텍스트분석에서 본질적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서 후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텍스트(비언어학적 텍스트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텍스트) 자체와 관련되는 언어 내적 요인이다. 그런데 텍스트 외적 요인은 또한 텍스트 내적으로 주체화된다.

모델화가 시도되었다. 물론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번역의 문제점들도 텍스트언어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단어와 문장언어학에서 텍스트언어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이론으로의 추이는 번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Dressler(1991, 61)가 주장한 바와 같이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텍스트언어학의 출현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Coseriu(1988, 295)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번역이론은 실제로 텍스트언어학의 한 분야라고 주장했다.<sup>9)</sup> 텍스트생성의 공통적 또는 상이한 규칙을 설정할 목적으로 텍스트종류에 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은 번역의 실제 작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Reiss가 분류한 텍스트의 세 유형(서술, 표현, 호소)은 특히 통사론적으로 번역학과 언어학의 연관관계를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텍스트유형과 텍스트의 대비적 비교연구에 관한 계기가 되었다.

### III. 번역과 텍스트유형

텍스트의 일반적 상황구속성으로부터 그 상황에 특수한 텍스트생성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텍스트언어학의 목적이다. 번역자들은 특정의 번역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텍스트유형의 분류와 각각의 유형이 지니는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진다.

텍스트유형과 번역의 관계는 Reiss, Vermeer, Paepcke, Koller, Stolze, Nord 등 주로 독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서로 상이한 텍스트유형은 번역과정에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유형과 번역방법 사이의 관계 즉 번역학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가 성립된다.

텍스트의 기능과 구조 사이에는 완벽한 1:1의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9) 1970년대 이래로 번역학은 점차로 텍스트언어학과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구조적 표지는 일반적으로 여러 기능과 변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텍스트기능의 특징은 텍스트의 내적(의미론적, 통사론적, 문체론적) 요인은 물론 그 외적(화용론적-상황적) 요인으로 구성된 사회-문화 특유의 표지결합이라는 사실이다. 텍스트유형은 반복되는 특정한 문화 특유의 표지결합을 토대로 해서 분류된다. 텍스트, 텍스트종류, 텍스트유형 등의 개념은 매우 불규칙하게 사용되며 텍스트의 유형이나 표지를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원칙은 없다. 그러나 텍스트의 종류와 유형을 기술하기 위해서 텍스트 내적 요인은 물론 텍스트 외적 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는 언어학자나 번역학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번역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텍스트언어학에서와 같이 텍스트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적합한 번역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 번역작업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종류의 특성, 기술가능성, 기술방법 등과 관련된 텍스트유형화에 관한 연구가 중심과제인 반면에 번역의 조건과 가능성에 관한 고찰이 주요 연구대상인 번역학의 관심분야는 텍스트종류의 분류와 연관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텍스트 구별, 즉 텍스트유형의 분류이다(Reiss/Vermeer 1984, 204).

번역과 관련되는 가장 잘 알려진 Reiss의 텍스트유형 분류에 관해서 논의하기 전에 번역과 텍스트유형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텍스트 차원에서 번역의 필요성을 주창한 선구자로서 Hieronymus(348-420), Vives(1492-1540), 그리고 Schleiermacher (1768-1834) 등을 들 수 있다:

- 1) Hieronymus는 현대적 의미에서 텍스트를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통용어텍스트(*gentilium litterarum libri*)와 성서텍스트(*divina scriptura*)로 양분했다(Kloepfer 1967, 29). 그는 전자의 경우에 의의를 다른 의의(*sensum exprimere de senso*)로, 후자의 경우에는 한 단어를 다른 단어(*verbum e verbo*)로 번역했다(Störig 1963, 1-13). 이러한 그의 번역방법은 텍스트유형을 토대로 한 번역방법의 단초로 간주된다.
- 2) Vives는 Cicero와 Hieronymus의 이론을 토대로 텍스트유형에 기초한 한층 더 구체적인 번역이론을 발전시켰다. Vives는 번역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물론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또한 번역목적에 적합해야 한다(Coseriu 1970, 572f.). 세 종류의 번역방법은 (1) 텍스트의의만 고려되는 방법인데 여기에



서는 정보전달이 주목적이고, (2) 텍스트형식이 중시되는 방법에서는 의의보다는 언어의 형식적 표현방법이 중요하며, (3) 텍스트의 의의는 물론 형식이 고려되어야 하는 방법에서는 텍스트의 의의와 형식이 모두 번역문에 보존되어야 한다 (Wilss 1981, 29).

- 3) Schleiermacher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두 유형으로 구분했다: (1) 간주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파악된 사태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매체역할을 하는 텍스트(신문기사, 기행문 등), (2) 개별어적으로 제한된 언어형식이 전이된 내용과 함께 한층 더 고차원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텍스트(문학작품, 학문분야의 서적).<sup>10)</sup>

최근 Bühler(1934)는 Platon의 “die Sprache sei ein organum, um einer dem andern etwas mitzuteilen über die Dinge”<sup>11)</sup>라는 주장에 의거해서 설정한 그의 Organon-Modell에서 발신자, 수신자, 지시대상의 세 요인을 구별했다. 이에 상응하여 그는 언어의 1) 지시Bezeichnung, 2) 표현Ausdruck, 3) 호소Appell의 세 기능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각각 Reiss의 1) 정보텍스트, 2) 표현적 텍스트, 3) 기동적 텍스트의 유형에 상응한다.

Reiss(1971, 33)는 Bühler의 오르가논 모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번역과 관련된 세 가지의 텍스트유형을 설정했다:

- 1) 내용을 강조하는 정보 텍스트유형 informativer Texttyp은 내용을 중시하는 모든 텍스트종류인데 Bühler의 서술기능 Darstellungsfunktion에 해당된다(신문기사, 보고서, 논문, 해설서, 문서사용설명서, 실용서 등). 여기에서는 원어텍스트에 내재된 정보량이 손실없이 역어독자에게 전달되도록 번역되어야 한다.
- 2) 형식을 중시하는 표현적 텍스트유형 expressiver Texttyp은 언어적 표현기능을 강조하는 텍스트종류인데 Bühler의 표현기능 Ausdrucksfunktion에 해당된다(문학작품, 자서전 등). 형식을 중시하는 표현적 텍스트 즉 문학작품 번역에서는 원어텍

10) Schleiermacher에 의하면 (1)에 속하는 텍스트는 통역Dolmetschen의 대상이고, (2)에 속하는 텍스트는 번역 Übersetzen의 대상이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그가 번역대상인 예술작품 텍스트번역에는 모사적Nachbildung 방법, 그리고 학문이나 철학적 텍스트번역에서는 의역 Paraphrase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11) Bühler(<sup>2</sup>1965, 94)는 “언어는 타인에게 사물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오르가논(원칙)이다”라는 Platon의 견해에 따라 언어의 세 기능을 1) 선언Kundgabe, 2) 환기Auflösung, 3) 기술Darstellung로 구분했다.

스트에 나타난 형식적 요인이 역어텍스트에서도 표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어텍스트의 예술성이 역어텍스트 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3) 호소를 강조하는 기동적 텍스트유형 *operativer Texttyp*은 호소와 선전을 나타내는 모든 텍스트종류인데 Bühler의 호소기능 *Apellfunktion*에 해당된다(광고, 선전, 설교문, 논박서, 풍자 등). 기동적 텍스트번역에서 번역자는 원어텍스트에 의해서 야기된 것과 동일한 행동자극 *Verhaltensimpuls*을 역어텍스트의 수신자들에게 일으켜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번역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원어와 역어의 텍스트기능이 서로 동일하게 되도록 번역하여야 한다(Reiss 1976, 23).

모든 텍스트 집필자들은 그들이 텍스트를 완성하기 전에 위에 열거한 모든 문화권에 존재해야 할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적 기본형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유형<sup>12)</sup>이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이다(Reiss/Vermeer 1984, 206). Reiss(1971, 54)에 의하면 텍스트유형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그것에 상응하는 번역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유형과 관련되는 번역방법은 원어 번역단위의 등가를 역어에서 찾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기능은 보존되어야 한다.

실제로 번역과 텍스트유형의 관계는 Reiss가 제시한 바와 같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 번역작업에 그녀의 텍스트유형 분류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다. 텍스트유형에 따른 번역작업에서는 텍스트특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방법에 의해서 번역된 역어텍스트에서도 그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남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 한편 번역텍스트 특성을 미리 알고 번역에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방법의 장점이다.

#### IV. 기능적 텍스트분석

번역과정에서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Wilss(1981), Koller(1997) 등 등가이론에 기초한 학자들은 원어텍스트 분석을 번역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텍스트의

12) 텍스트유형은 우선적으로 기능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언어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포괄적 이해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 분석은 본질적으로 역어텍스트 생성의 규범과 기준을 확정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번역의 난해성은 기존의 언어학적 분석과 기능적 텍스트분석 방법이 일치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기능적 텍스트분석에서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은 텍스트개념의 규정을 위해서 결정적 요인이 된다. 반면에 의미론적-통사론적 텍스트성의 특성은 커뮤니케이션적 기능만 충족된다면 의미론적으로 통일성이 없는 언표는 물론 형식적으로(통사론적으로) 불일치하는 언표 역시 수용자에 의해서 텍스트로 파악된다. 불완전한 텍스트도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원어텍스트가 커뮤니케이션적 기능만 갖춘다면 번역자는 물론 모든 수용자들도 이러한 결함을 인식하고 이것을 텍스트수용 능력과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통해서 극복한다. 이처럼 원어텍스트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은 텍스트분석을 위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Nord 1995, 40). 그러나 번역과정이 원어텍스트의 언어학적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번역계약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규정될 경우에는 원어텍스트 분석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기능번역 이론의 성향을 지닌 학자들이 원어텍스트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Nord 1999, 3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학자들은 많은 장점을 지닌 번역과 연관되는 텍스트분석을 선호한다.

분석은 인식하려는 주체를 객관화함으로써 고찰하려는 대상이 어떤 형식과 기능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시도함을 뜻한다.<sup>13)</sup>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분석의 문제점은 텍스트 외적 요인의 분석방법이 객관적이지 아니라는 데에서 야기된다. 현재 경험적-분석적 과학이론의 관점에서 언어 외적 요인의 객관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고 텍스트이해가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감수성, 경험 및 전문지식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텍스트는 어떤 주어진 언어상황의 테두리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텍스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텍스트의 화용론적, 사회-문화적 요인

13) 반면에 해석Interpretation은 텍스트독자로서 본인이 어떤 의미와 의의를 인식하였는 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한다.

이 규명되고 그 다음으로 텍스트의 거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시적 구조<sup>14)</sup>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상화된 텍스트분석 방법은 Hönig(1986), Thiel(1991), Koller(1992), Gerzymisch-Arbogast(1994), Nord<sup>3</sup>(1995), House(1997) 등 많은 번역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에서 모든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타당성이 있는 Nord의 텍스트분석 방법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기능적 텍스트분석에서 텍스트 내적 요인은 그 외적 요인과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텍스트분석 과정에서 번역학자들은 언어적 요소에 토대를 둔 아래에서-위로Down-top모델보다 위에서-아래로Top-down모델을 선호한다.<sup>15)</sup> 텍스트분석은 거시적 층위에서 미시적 층위로, 텍스트 전체에서 언어기호로 분석이 진행된다. 번역자에게 텍스트는 순수한 언어현상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을 지닌 주관적이고 복합적 구성체이다. Vermeer(1983)가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는 '세계연속의 일부분Teil eines Weltkontinuums'으로서 고립된 현상이나 소수의 항목만이 강조되고 깊이 연구되어야 하는 현상도 아니다. 텍스트는 모든 구성요인이 상호간 연관관계에 있는 체계의 망이며 개별적 항목의 중요성은 텍스트 내에서 관련성과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텍스트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Snell-Hornby 1988, 6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Nord가 텍스트분석의 지침으로서 제시한 Lasswell-Formel공식(who says what in which channel to whom with what effect?)은 타당성을 지닌다.<sup>16)</sup> 또 한편 동일한 텍스트수용에서도 개인은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Nord는 텍스트의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이러한 임의성을 지양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방법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했다.

위에서 언급한 텍스트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분석방법으로서 Nord(1995, 41)는 Lasswell-공식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W-

14) 여기에서는 제목과 텍스트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15) 이것은 Snell-Hornby(1988, 69)가 텍스트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분석방법이다. 그녀는 텍스트를 게슈탈트Gestalt이론에 의거해서 완벽한 전체로 취급했다. 전체론적 원칙에 의하면 전체는 그 부분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며 또한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16) Nord(1999, 351)는 이러한 분석방법의 선구자로서 기원전 2세기에 Hermagoras von Temnos와 기원후 12세기에 Mattieu de Vendôme를 지칭했으며 텍스트분석의 원칙으로서 제시된 라틴어로 기록된 문헌에 "Quis quid ubi quibus auxilium cur quomodo quando?"라는 문구가 남아 있다.

Fragen물음이 포함되어 있다(Nord 1995, 351):<sup>17)</sup>

발신인 또는 텍스트생성자 'who', 수신인 'whom?', 채널 또는 매체 'in which channel?', 그리고 영향과 기능 'with what effect'에 관한 텍스트 외적 요인 이외에도 또한 장소 'where?', 텍스트의 생성 및 수용의 시점 'when?', 커뮤니케이션적 동기 'why?', 그리고 발신인의도 'for what reason?'에 관한 물음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Lasswell-공식에서 'what?'는 부분적으로 텍스트의 주제와 내용, 전제 'what is not said?'와 그 문체론적-형식적 표지 'how'로 세분화되었는데 이것은 Nord에 의해서 텍스트구성, 비언어적 요인, 어휘, 구문 그리고 초분절적 표지로 한층 더 세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세분화된 Lasswell-공식은 다음과 같은 물음의 연속으로 정의된다: 누가 무슨 의도로 누구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디에서 언제 왜 어떤 기능을 지닌 텍스트를 전달하느냐? 그는 무엇에 관해서 무엇을(무엇은 아니고) 어떤 순서로, 어떤 비언어적 요소를 첨가해서, 어떤 어휘로, 어떤 문장들로, 어떤 효과를 가진 무슨 음성으로 말하느냐? 즉 텍스트의 내적 및 외적 요인에 대해서 역어텍스트 기능적 분석과 관련되는 정보에 관해서 일련의 물음을 제시할 수 있다.

Nord(ibid. 41ff.)에 의하면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그 당시 상황 즉 텍스트 외적 요인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어떤 텍스트 내적 요인 즉 어떤 언표가 사용되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텍스트 외적 요인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적 분석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방법이 결합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두 분석과정의 반복성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녀는 기능번역 이론에 바탕을 두고 Lasswell-공식에 의거해서 원어텍스트를 분석하여 번역과 관련된 형식적 또는 내용적 요인을 추출하여 역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언어상황에 적합하고 기능적으로 알맞은 텍스트를 생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언어상황의 미묘한 차이를 Lasswell-공식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Stolze(1994, 176-179)의

17) Lasswell-공식은 이미 Reiss(1984), Bühler(1984), Höning(1986), Nord(1988)에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분석 방법으로 수용되었다.

Nord의 분석방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비판은 기능번역 이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재고하게 한다:

- 1) 기능번역 이론에서 적용된 실제 번역과정은 표층구조에서 비교되는 언어쌍과 관련된 번역이론과 다를 바가 없다. Nord는 번역을 본질적으로 텍스트를 개작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녀는 번역가능성과 행위 중심적 텍스트개념을 주장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텍스트단위가 번역단위와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즉 역어텍스트에 보존되어야(다시 사용되어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번역과정에서 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어텍스트를 모든 층위에서 분석하려는 그녀의 노력도 언어구조를 확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 2) Nord의 텍스트요소에 관한 상세한 기술방법은 그녀가 강조한 기능번역 이론과 모순관계에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역어와 원어텍스트 사이의 응집력 즉 의미론적 연관관계가 번역목적보다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8)</sup>

물론 경험적-분석적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실제로 완벽한 텍스트분석 방법의 정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능번역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설정한 범주에 의거해서 번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객관화함으로써 시간절약 뿐만 아니라 실제번역에 자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텍스트분석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번역학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V. 텍스트이해

번역은 언어기호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고 그 형식(표현수단)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 세계관,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역동적이고 고유한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형식으로 바꾸어 재생하는 창조적이고 예술적 행위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현상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상응하는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을 지닌 복합적, 다차원적 구조이다.

18) 기능번역 이론에서는 번역목적Skopos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번역목적 달성을 위해서 역어텍스트의 기능을 원어텍스트와 다르게 변경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사회-문화적으로 다르게 구성된 인식조건에 의해서 규범화된 특정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역으로 인간은 이렇게 이룩된 문화에 의해서 사고와 인식의 제약을 받는다. 인간은 객관적인 모든 자연현상을 그의 세계관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체계화한다. 어느 한 문화권의 구성원은 그 구성원에 의해 창조된 문화라는 독특한 창을 통해서 실세계를 파악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어느 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현실 개념파악의 방법에 따라 실세계를 개념화하고 파악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서 언어사용자의 세계관 즉 언어적 사고의 고유한 법칙이 어장구분에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 문화권의 구성원이 실세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Trier(1931, 20)의 어장이론 Wortfeldtheori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9)</sup> 이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의미내용은 모든 언어(모국어)가 당해 언어공동체에 고유한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구속력이 있는 중간세계 Zwischenwelt<sup>20)</sup>를 포함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Koller(1997, 163)의 주장은 번역과 언어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언어를 습득했다는 것은 그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현실파악의 방법을 취득했다는 말과 같다. 환언하면 어느 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그 문화권에 전승된 현실 파악방법과 언어를 계승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해방이란 동시에 언어비평이어야 하는 문화비평이다. 모든 번역은 어느 한 언어권에 유효한 원칙을 문제시하고 극복 또는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한 문화권으로부터 고정관념을 버리고 해방되는 데 기여한다.

19) 언어비교를 통해서 개별어 어장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개별어 어장의 위치가 Stellenwert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언어에서 동일한 어휘의 의미내용은 정확한 등가관계에 있지 않다.

20) 중간세계는 Weisgerber(1971, 54)의 내용문법 Inhaltbezogene Grammatik의 중심개념인데 여기에서 언어는 언제나 모국어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어느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국어에 의해서 규정된 정신적 중간세계를 통해서 실세계를 파악하고 개념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생성은 언어학적 영역을 떠나 문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어, 사고와 현실 파악 사이의 관계는 번역작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바꾸어 말하면 번역목적은 텍스트에 표현된 것을 근간으로 하여 텍스트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데 있으므로 번역의 질적 문제는 번역자의 번역능력<sup>21)</sup>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작업의 어려움은 텍스트 외적 요인의 객관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번역의 난해성은 언어와 개념의 관계보다는 실재와 개념의 관계에서 야기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천하는 언어 외적 요인 그 자체는 문화와 언어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객관적으로 검증이나 확증할 수도 없는 비구조적인 것이다. 이것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냐는 텍스트생성자의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이해나 해석은 언제나 주관적이며 개별적 텍스트는 언어구조적 관점에서 동질적일 필요도 없다.

텍스트이해는 번역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객관적 방법에 의거하지 않고 번역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보다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학과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언어학자들은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방법은 체계화할 수 없을 뿐더러 방법론적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하고 얼마나 많은 전문지식과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소지했느냐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달라진다(Kussmaul 1996, 229). 번역의 질적 문제는 텍스트이해 능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번역과 텍스트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오래 전부터 해석학적 관점에서 계속되었다. 여기에서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 번역과정 등에 관한 논의보다는 고유한 방법으로 번역되어야 할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체로서 번역자의 이해 능력에 관한 연구가 중요시된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학은 정밀과학

21) 번역능력이란 번역자의 언어능력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화자의 의도성과 텍스트기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 아니고 인문학으로 취급되며 그 연구대상은 생명이 없는 언어구조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해석학적 사고는 사물의 객관적 분석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직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표는 대체로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정확하지 않지만 직감적으로 명확하여야 하며 또 한편 관용적 어법으로 기술될 수 없을 경우에 비유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종종 은유적 어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석학은 비과학적 학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Stolze 1994, 183f.).

그러나 1) 상황성, 2) 초월적 총체성, 3) 개체성과 같은 텍스트특성(Stolze 1985, 29-33)을 고려해 볼 때 텍스트이해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 모델을 설정한다는 것은 현재 텍스트언어학의 수준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텍스트이해를 위해서는 역시 해석학적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널리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번역의 본질은 언어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다. 언어를 통해서 주관적 표상에 의해 각인된 사실 이외에 어떤 다른 사실도 존재할 수 없다. 번역작업에서는 이러한 원어의 정신세계가 역어의 언어기호로 재생되기 위해서 분해되어서 비언어화되어야 한다(Ladmiral 1993, 293). 환언하면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번역의 본질은 원어의 표현구조를 포기하는 데 있다. Ch. Fillmore의 Scenes-und-frames 상황과 틀(의미와 표현수단)이론 역시 무엇을 표상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어-문화적으로 적절한 표현방법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번역은 원어텍스트를 이해한 후에 기능에 맞게 역어텍스트를 디자인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은 언제나 새로이 조화롭게 원어의미를 보존하는 역어텍스트를 추구하는 작업인 동시에 해석학적 설계이다(Paepcke 1986, 186). 번역목적은 언제나 최적의 역어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있다. 즉 텍스트 전체적으로 보아 올바르게 기능에 맞는 번역이 존재할 뿐이지 객관적으로 정확히 1:1의 대응관계를 지닌 번역은 있을 수 없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는 단순히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며 그 의미는 개인적 수용의 과정을 통해서만 밝혀진다. 텍스트 언어학자들은 텍스트 밖에서 관찰자가 아니며 그가 소속된 언어공동체에서 습득한 언어 즉

모국어 지식을 토대로 모든 텍스트를 고찰한다. 이와 같이 해석학과 텍스트 이론의 연관관계는 번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번역자들은 그들의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텍스트에서 표현된 것(말해진 것 *das Gesagte*)을 찾아내고, 그것에서 다시 의미된 것 *das Gemeinte*을 추론한다.

텍스트이해는 물론 방법론적으로 타당한 분석방법에 의해서 한층 더 명확해질 수 있다. 텍스트분석 목적은 언어학적(객관적) 범주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그 텍스트에 내재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비판적 텍스트분석은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와 최적의 역어텍스트 생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이며 또 한편 언어학적 표지의 인식은 텍스트 연관관계에 관한 해석학적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번역과정에서 언어학적 범주의 도움으로 텍스트 전체의 해석학적 이해와 텍스트의 체계적 분석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이해와 체계적 분석은(예를 들면 처음에 전체로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정의 의미론적, 그리고 통사론적 특성을 찾아내는 등) 연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언어학적 텍스트분석만으로 포괄적 텍스트이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텍스트의 초월적 총체성 때문에 부분적 내용의 추적을 통해서만 텍스트 전체의 의의가 파악될 수도 없다(Stolze 1985, 47-50). 그러나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번역자는 텍스트분석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 의의를 이해하고 이를 또한 상대화할 수 있다.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번역과정에서 텍스트이해는 중요한 작업인 동시에 또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번역의 질적인 성공여부는 텍스트이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번역은 모든 언어-문화적 상황구속성과 저자의 의도설정 등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어와의 관계이며 또 한편 그 과정에서 이해된 것을 메시지로 작성해야 한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텍스트는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번역학적 이론의 다른 견해와 방법론이 수용되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Stolze가 해석학적 이해를 위해서 번역학적(언어학적) 범주를 체계화한 것은 학제적 연구의 본보기로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sup>22)</sup>

## VI. 맺음말

번역이란 텍스트에 표현된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서 다시 의미된 것을 추론하는 작업인데 이는 텍스트의 분석과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시되는 것 즉 번역의 난해성은 텍스트이해가 번역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상황적, 역사적, 개인적, 우연적 요인이 함축되어 있는 텍스트분석의 객관적 범주 설정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최근 Reiss, Vermeer, Paepcke, Koller, Stolze, Nord, Höning 등 다수의 번역학자들은 언어학적 범주를 근간으로 텍스트유형에 따른 특정의 번역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환언하면 텍스트의 이해, 유형과 분석을 객관화할 수 있는 번역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970년대 언어학 중심적 번역이론은 점차로 기능번역 이론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번역학자들은 제문화간에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번역텍스트는 문화변용의 가상적 상황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 상황을 제공한다. 번역은 한마디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번역의 본질적 문제는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리고 번역자는 번역과정에서 항상 정보전달의 행위나 방법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텍스트유형 분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번역의 본질은 원어의 표현구조를 포기하는 데 있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번역은 원어의 표현수단으로 사용되는 텍스트를 전혀 다르게 구조화된 언어적-문체론적 방법을 사용하는 역어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이다. 결국 번역의 본질은 서로 다른 세계관 즉 사회-문화와 전통에

---

22) Stolze(1992)가 *Hermeneutisches Übersetzen. Linguistische Kategorien des Verstehens und Formulierens beim Übersetzen*에서 텍스트의 해석학적 이해를 위해서 번역학적 범주의 체계화를 시도한 것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이러한 범주를 주제의 논구, 의미론, 어휘론, 화용론, 문체론으로 구분했다.

의해서 고유하게 체계화된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텍스트번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텍스트 외적 요인인데 최적의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석, 비판하고 체계화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필자가 이 논문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 1) 현재 분석적-경험적 방법으로 텍스트 외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많은 번역학자들이 이러한 요인을 언어학적 범주의 도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므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 2) 기능번역의 질적 문제는 텍스트이해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텍스트이해는 번역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학과 해석학과의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 3) 상이한 텍스트유형은 번역과정에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번역학자들은 텍스트유형의 분류와 각각의 유형이 지니는 특성에 관한 연구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텍스트이론을 바탕으로 최적의 번역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기능번역 이론에서는 너무나 많은 언어 외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실제 번역작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시된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이 문화이기 때문에 번역의 본질 역시 문화변용이다. 우리 학계에서도 이 방면에 많은 연구가 활성화되어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ühler, K. 1934<sup>2</sup>(1965).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
- Coseriu, E. 1970. "Über Leistung und Grenze der kontrastiven Grammatik." In H. Moser(Hg.). *Probleme der kontrastiven Grammatik.* Düsseldorf.
- \_\_\_\_\_ 1988. "Falsche und richtige Fragestellungen in der Übersetzungstheorie." In Albrecht, J.(Hg.). *Energia und Ergon. Band I. Schriften von Eugenio Coseriu(1965-1987).* Tübingen.
- Dressler, W. 1991. "Der Beitrag der Textlinguistik zur Übersetzungswissenschaften." In Kapp, V.(Hg.). *Übersetzer und Dolmetscher.* Tübingen.
- Gerzymisch-Arbogast, H. 1994. *Übersetzungswissenschaftliches Propädeutikum.* Tübingen.
- Hartmann, P. 1971. "Texte als linguistisches Objekt." In Beiträge zur Textlinguistik. Lyons, J.(Hg.). Hamburg.
- Helbig, G. 1986.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seit 1970.* Leipzig.
- Hönig, H. 1986. "Übersetzen zwischen Reflex und Reflexion - ein Modell der übersetzungsrelevanten Textanalyse." In Snell-Hornby, M.(Hg.). *Übersetzungswissenschaft. Deutsch und Englisch in der internationalen Kommunikation.* Tübingen.
- Hönig, H./Kußmaul, P. 1984. *Strategie der Übersetzung. Ein Lehr- und Arbeitsbuch.* Darmstadt.
- Horz-Mänttari, J. 1986. "Translatorisches Handeln - theoretisch fundierte Berufsprofile." In M. Snell-Hornby(Hg.). *Übersetzungswissenschaft. Eine Neuorientierung.* Tübingen.
- House, J. 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 Kloepfer, R. 1967. *Die Theorie der literarischen Übersetzung. Romanisch-deutscher Sprachbereich.* München.

- Koller, W. <sup>4</sup>1992/<sup>5</sup>1997.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Heidelberg.
- Kußmaul, P. 1996. "Die Bedeutung des Verstehensprozesses für das Übersetzen."  
In Lauer/Gerzymisch-Arbogast/Haller/Steiner(Hg.). *Übersetzungswissenschaft im Umbruch. Festschrift für Wolfram Wilss zum 70. Geburtstag*. Tübingen.
- Ladmiral, J-R. 1993. "Sourciers et ciblites." In Holz-Mänttari/Nord, C.(Hg.). *Traducere Navem. Festschrift Katharina Reiss. Tempere*.
- Nida, A./Taber Ch,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 Nord, Ch. 1988. "Übersetzungshandwerk - Übersetzungskunst. Was bringt die Translations theorie für das literarische Übersetzen?" In *Lebende Sprachen 2*.  
\_\_\_\_\_ <sup>3</sup>1995. *Textanalyse und Übersetzen. Theoretische Grundlagen. Methode und didaktische Anwendung einer übersetzungsrelevanten Textanalyse*. Heidelberg.
- \_\_\_\_\_ 1999. "Textanalyse: pragmatisch/funktional." In *Handbuch Translation*.  
Snell-Hornby M./Hönig, H.G./Kußmaul, P./Scmitt, P.A.(Hg.). Tübingen.
- Paepcke, F. 1986. *Im Übersetzen leben - Übersetzen und Textvergleich*. Berger, v.K./Speier, H.-M. Tübingen.
- Reiss, K. 1971 / <sup>2</sup>1982.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Kategorien und Kriterien für eine sachgerechte Beurteilung von Übersetzungen*. München.
- \_\_\_\_\_ 1976. "Das Textsortenproblem aus angewandt-linguistischer Sicht." In H. Drescher/S. Scheffzek(Hg.). *Theorie und Praxis des Übersetzens und Dolmetschens*. Bern.
- Reiss, K./Vermeer, H. 1984.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 Schmidt, J. 1973. "Texttheorie/Pragmalinguistik." In P. Althaus/H. Henne/H. Wiegand(Hg.).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Band II. Tübingen.
- Snell-Hornby, M. 1988. *Translation Studies - An Inter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 Stolze, R. 1985. *Grundlagen der Textübersetzung*. Heidelberg.

- \_\_\_\_\_ 1992. *Hermeneutisches Übersetzen. Linguistische Kategorien des Verstehens und Formulierens beim Übersetzen.* Tübingen.
- \_\_\_\_\_ 1994. *Übersetzungstheorien. Eine Einführung.* Tübingen.
- Störig, H.(Hg.) 1963.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Darmstadt.
- Thiel, G. 1991. "Ansätze zu einer Methodologie der übersetzungsrelevanten Textanalyse." In V. Kapp(Hg.), *Übersetzer und Dolmetscher.* Tübingen.
- Trier, J. 1931. *Der deutsche Wortschatz im Simbezirk des Verstandes. Die Geschichte eines sprachlichen Feldes.* Heidelberg.
- Vermeer, H. 1983. *Aufsätze zur Translationstheorie.* Heidelberg.
- Weisgerber, L. <sup>4</sup>1971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Düsseldorf.
- Wills, W. 1981. *Übersetzungswissenschaft.* Darmstadt.

《ABSTRACT》

## Translation and Text Function

Youn Han Kim

Translation is a work of finding what is expressed in a text and inducing what is meant from the expression. To induce what is meant from what is expressed means to understand the text. However, the problem with this process, i.e., the difficulty of translation lies in the fact that a translator understands a text through his subjective judgement and that it is very hard to establish objective categories for analyzing texts in which situational, historical, individual, and incidental aspects are implied.

Recently, lots of translation scholars, including Reiss, Vermeer, Paepcke, Koller, Stolze, Nord, and Hönig, have been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particular translation theory based on text types and linguistic categories. In other words, they are seeking a translation method for objectification of text comprehension, text types, and text analysis.

Currently, linguistics-oriented translation theory of the 1970s is gradually giving way to functional translation theory. Thus, translation schola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nteraction among different cultures. A translated text provides actual and specific situation of acculturation, not a assumed one. In a word, translation i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fundamental question of translation is how to overcome cultural barrier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ranslators should always remember that different methods and structures of information transfer are applied to different cultures.

With a presupposition that extratextual aspects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I had thus far been analyzing, criticizing, and



systematizing those aspects that will ensure optimal translation, a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

1) Current analytic/empirical methods cannot objectively analyze extratextual aspects. However, lots of translation scholars have been recently trying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analyzing the extratextual aspects with the help of linguistic categories. Therefore, it will only be a matter of time before an acceptable methodology is established.

2) Quality of functional translation is closely related to ability to understand texts. Because text comprehension does not depend on objective methods but on translators' subjective judgement,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th hermeneutics is essential. After all, whether a translation succeeds or not depends on translation competence of translators.

3) Different text types should be handled differently in the process of culture-oriented translation. Translation schola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yp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ext types.

As mentioned above, I tried to establish an optimal translation theory on the basis of text theory. However, this conclusion is still in doubt as to how useful it will be in regards to the actual process of translation, because functional translation theory requires the consideration of too many extralinguistic aspects.

(1) 주제분류: 번역학

(2) 검색어: 기능번역, 텍스트기능, 텍스트유형, 텍스트이해, 텍스트분석